

한국의 건축가 - 김수근 (1)

Korean Architect, Kim Swoo-Geun

성장배경과 서울의 복촌

鄭麟夏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Jung In-Ha

본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의 건축가」 기획연재는 그동안 게재되었던 이희태(95년 3월호~5월호), 김정수(95년 6월호~8월호)에 이어 건축가 김수근(1931~1986)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부터 소개되는 건축가 김수근편에서는 그가 태어난 1931년부터 1960년까지의 유년 시절과 건축의 수련기(성장배경과 서울의 복촌, 일본에서의 건축교육)를 시작으로 1960년부터 1972년까지의 한국건축의 새로운 이념형을 찾아서(김수근 건축연구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인간환경 계획연구소), 공간시대(1972년~1986년)등으로 구분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분석·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1. 김수근의 성장배경

개인이란 무엇인가? 어디에 그의 정체성이 있는가? 그 끝없는 탐구에, 토마스만은 매우 중대한 기여를 했다: 우리는 행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행위하는 것은 타자 혹은 타자들이다.

밀란 쿤데라, 사유하는 존재의 아름다움.

건축가에게 있어서, 그가 처음 자아를 의식하면서 느끼게 되는 공간이나 자연의 특징, 그리고 시대상황은 그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김수근은 1931년 함경남도 청진시 신암동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서부터 해방까지 15년의 시기는 일제에 의한 조선의 강점과 그에 따른 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일본이 이른바 '다이쇼오(大正) 데모크라시'시기가 끝나고 파쇼체제로 넘어가면서 침략전쟁을 만주사

면,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하고 식민지 조선에 대해 전쟁협력을 강요하던 시기이다. 침략전쟁이 본격화한 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파쇼체제가 그 본국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조선 민족의 정체성자체를 말살해 버리기 위해서, 한국어 사용금지와 창씨개명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인식과 사유의 도구인 언어가 실제생활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정신구조가 왜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는 참으로 힘들다. 김수근도 이 점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시기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일본 통치시대에 일본헌병이 어떤 행동을 하였다든가, 일본 군국주의가 무엇을 하였다든가, 살인을 하였다든가 한 것들은 접어 두고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서부터 원점에 이르는 시점까지의 문화를 상실했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왜곡과 단절은 그가 일생을 두고 복원해야 할 과제로 등장한다.

김수근의 집안은 원래 경상도 봉화쪽이었지만, 그의 부친이 사업을 위해서 청진으로 이주했다. 그의 가문에 대해서 상세한 내력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조부는 한문교육을 담당한 마을 훈장이었다고 한다. 그의 부친 김용환(金龍煥)은 사업에 상당한 수완이 있어서 일찍부터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그가 청진에서 한 것은 정어리 건작사업이었다. 본어선 한 척에 운반선 5척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아서, 그것을 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기름을 짜고, 가스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다. 이런 종류의 사업은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허가가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청진에서도 다섯 명 정도의 조선인만이 이 사업에 종사할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일인이었다¹⁾고 한다. 아버지의 사업덕분에 김수근은 유년시절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한다. 일제의 경제적인 수탈에 따라 가난과 궁핍에 시달렸던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생활환경은 분명 예외적인 것이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시대의 다양한 풍속과 사상을 처음으로 조우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김수근이 성장할 당시 그의 집안에는 전환기

1. 김수근, 문화와 공간, 김수근 공간 인생론, 228쪽.
2. 김수근 모친과의 인터뷰.

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특징들이 공존해 있었다. 어머니는 매우 봉건적이고 엄격한 집안 교육을 받고 성장한 반면, 아버지는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동양으로 물려오고 있었던 서구의 새로운 문명에 일찍 눈을 뜨고 그 문화를 향유하려고 한 사람이었다. 두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이 가족 내에서 상존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김수근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김수근의 회고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근대지향적이고 부르조와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서구의 부르조와들이 가지는 속성들은 식민지라는 한계상황에 의해서 여러가지 왜곡된 형태로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이상 펼칠만한 장을 찾지 못하고,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얼룩진 식민지 시대의 부르조와들이 여자와 술에 도피한 것처럼 말이다. 염상섭의 '삼대'나 채만식의 '태평천하'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김수근의 부친은 많은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에 집착하지는 않았다.³⁾ 오히려 가진 것만큼 뿌리고 쓰는게 좋다는 의식을 가진 한량이었다고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은 별로없이 현실에 최대한 만족하면서 삶을 영위했던 것이다. 최신 유행의 옷을 입었으며, 당시에 회귀했던 차를 장만하고, 집을 취향에 따라 자주 바꾸고, 만주와 일본으로 돌아다니며 풍류를 좇아 다녔다는 사실은 이런 왜곡된 풍속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 아버지의 가치관은 김수근의 삶에서도 많은 부분 발견된다. 그 역시 풍류를 좇아서 기생집 출입이 잦았고, 부친과 유사한 데카당한 분위기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김수근을 낭만주의자라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그는 그의 부친처럼 건축을 통해 돈을 벌어서 모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번 돈을 어떻게 하면 고급스럽게 소비해야 할까를 고민하였다. 상당한 적자를 무릅쓰고 공간지를 계속 운영하였고, 극장이나 갤러리를 공간사육내에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사업에 손을 댄 것은, 건축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동시대의 건축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이런 낭만적이고 쾌락주의적 가치관은 모든 생활태도에도까지 미친다. 그는 건축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 매순간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지고, 좋아하는 것들을 최대한 탐닉하려 하였다. 이런 그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그의 고백에서 잘 드러난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평생에 딱 한번밖에 못먹는 정해진 수의 끼니를 또박 또박 계속하는 셈이다. 여생이 30년이라 치면 정해진 저녁은 매일 빠짐없이 든다 치더라도 약 1만회 밖에 못된다. 오늘의 바로 이 저녁은 그 1만회 중의 1회인지라 다음은 9천9백대로 내려간다. 무척 아쉽고 소중한 한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음식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과 건축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태도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유년시절을 특징짓는 것 중의 또다른 하나는 도시적 감수성을 일찍부터 체험한 사실이다. 이것은 그가 일찍부터 ‘근대적 자아’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

을 이룬다. 당시 조선의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근거를 농경문화에 둔 반면, 김수근은 그의 부친 덕분에 일찍부터 도시적인 감수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이미 부분적으로 근대적 면모를 갖추어 나갔던 서울 뿐 아니라 이 곳보다 훨씬 서구화된 일본과 만주의 도시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고, 이 때 도시가 주는 물질적인 감수성을 풍부하게 경험한다. 문명의 이기와도 매우 일찍 접한다. 자동차와 카메라 등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상징물이다. 우마차를 통해 보이는 농촌 들녘과 질주하는 자동차 안에서 보이는 도시풍경을 비교할 때 발생하는 감수성의 차이를 상상해 보라. 이런 성장배경은 그가 당시 하나의 독립된 직업으로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였던 건축가의 길을 일찍부터 선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리고 이후 그의 귀족 취향의 미적 감각과 삶의 멋을 좇아 다니게 한 그의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김수근의 유년기 자아형성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업차 혹은 개인적인 일로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한 아버지보다는 꾸준히 그의 성장을 지켜본 어머니였다. 그의 삶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항상 공허하게 지나쳐 버리는 그 무엇이었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그의 실존적 고통을 어루만지는 영원한 보호처의 의미를 갖는다. 아버지를 통해 인생의 빛나는 섬망(d lire)과 뒤이어 오는 공허함을 보았다면, 어머니는 대지에 굳게 뿌리를 내린 닻이었다. 그리고 건축은 김수근에게는 어머니였다. 훗날 그는 집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집이란 언제 어느 때 돌아가게 될지는 자신도 알 수 없을 때 그 개념이 더욱 확실해지고 강화된다. 이럴 때일수록 집은 한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에 고여 있는 주체(主體)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오래오래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나의 집이란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라는 관념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 이런 집의 개념은 후에 그가 제시하게 될 모태공간(Womb space)과도 많은 연관을 지닌다. 그래서 <나의 집은 자궁입니다. 나의 집의 집의 집이 있습니다. 내집은 자궁이고 자궁의 집은 어머니이며, 어머니의 집은 가옥이며, 집의 집은 환경입니다>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

김수근의 모친인 김우수달(金又壽達)은 경남 진주에서 6남매중 둘째 딸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했다. ‘우수달’이란 이름은 불명(佛名)인데, 불심이 돈독했던 그녀의 조부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그 무렵 대부분의 양가집 규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집안 어른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진주여중을 끝으로 더이상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머무르면서 열여덟살 되던 해에 김용환과 중매로 결혼한다. 당시 김용환은 이미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었으나 부인과 사별하고 재가를 들었던 것이다. 그 첫아들이 바로 김수근이다. 아래로 남매가 더 있었으나 어릴 때 천연두를 앓다가 모두 사망하고, 결국 외아들이 된 수

3. 최일남의 인간 기행, 그말 정말입니까?, 동아 일보사, 1983.

근 혼자 남았다. 따라서 그녀가 아들에게 기울인 정성은 대단하였다. 그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해서 그가 취한 태도는 매우 절제있고 엄격한 태도였다. 마음속에는 사랑이 충만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좀처럼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 엄모(嚴母)의 태도일까. 당시 무엇보다 아쉬울 것이 없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칫하면 안하무인에 가까운 오만스런 인생관에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든 삶의 보람을 자식에게 투자한, 당시의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다. 이런 성장 환경은 그의 성격에 있어서 두가지 상반된 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먼저 강한 모자간의 유대감은 김수근의 유년기의 자아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를 중요한 심리적인 원형으로 각인케 한다. 성장한 후에 그는 일년의 반을 해외에서 떠돌아 다니며 보내지만 그의 내면에는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모태가 존재했다. 한국에 돌아 온 후 많은 여성편력을 하지만, 그는 결코 가정을 버리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부인에게 충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적으로 보자면, 십년에 가까운 일본 유학시절과 그리고 새로운 서구건축에 대한 그의 천착으로 인하여 많은 외국의 건축들을 섭렵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건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귀소성이 그의 이런 자아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다른 측면은 헌신적인 어머니가 거는 과도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김수근의 어머니는 그 당시 한국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가치관에 따라, 그의 자식이 법학을 전공하여 사회적으로 입신출세하기를 바랐다. 처음 김수근이 건축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머리속에는 '집을 짓는 목수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실망스러웠다고 한다.⁴⁾ 건축가의 직분 의식이 미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현대건축의 1세대로서의 사명 의식과, 건축가로서의 성공을 통해서 어머니의 정성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에게 많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었음이 틀림없다. 이런 심리 상태는 여러가지 편지나 글을 통해 나타난다. 김수근이 동경예대를 졸업하고, 동경대의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찍은 동경대의 아까몽(赤門)사진을 부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머니가 저에게 노래삼아 늘 말씀하시던 아까몽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매일 지나게 되었습니다.>⁵⁾ 동경에서 귀국한 후 국내 언론에 자주 소개가 될 때도 그는 항상 자신이 '톱 아키텍트'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려 했는데, 이런 반응도 심리적인 부담감의 또다른 표현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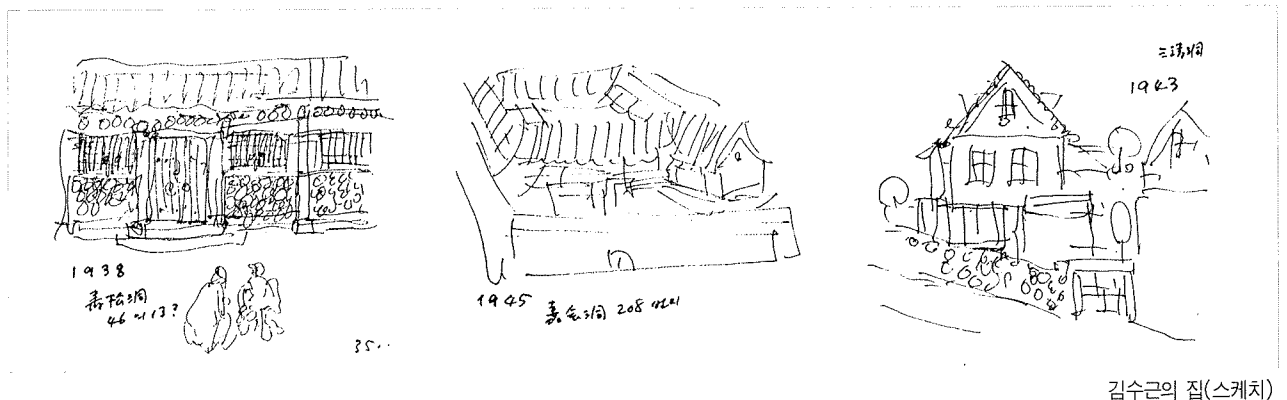
자식에 대한 정성은 강한 교육열로 이어진다. 김수근이 청진에서 서울로 오게 된 것도 바로 그의 어머니의 교육열 덕분이었다. <그 당시 경기중학을 목표로 했는데, 시골학생으로서 도저히 경기 중학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에 매우 반대한 그의 부친도 <모자가 무작정 서울로 와버리니, 그녀의 집을 격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에 집을 장만해 주게 된다.⁶⁾ 이미 청진에서 천마(天馬)소학교에 입학하였던 그는 한학기 만에 서울의 교동국민학교⁷⁾로 전학한다. 당시의 교동국민학교는 수송국민학교와 함께 장안에서는 가장 좋은 국민학교로 알려졌다. 매년 20여명에 달하던 경기중학교 입학생을 배출했고, 대부분 학생들의 집안도 상류층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1938년 그가 처음 이사를 온 곳은 종로의 수송동이였다. 1950년 625가 발발하기 전까지 그의 집은 종로구의 가회동, 삼청동, 원서동을 3-4년 주기로 옮겨다닌다.

2. 서울의 복촌

나는 어린 시절에 서울의 가회동과 낙원동과 제동과 인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꼬불꼬불한 많은 길을 누비고 걸어 다녔고, 자전거도 타고, 제기도 차며 그 길속에서 자랐다. 그 때의 길들은 나에게서 마당이요, 놀이터요, 시체(時體)말로 거실이요, 휴식의 처소요, 나의 몸과 살갓에 알맞는 주위공간이였다.

김수근.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건축가에게 있어서 조형의식과 공간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그의 건축에 나타난 원칙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



김수근의 집(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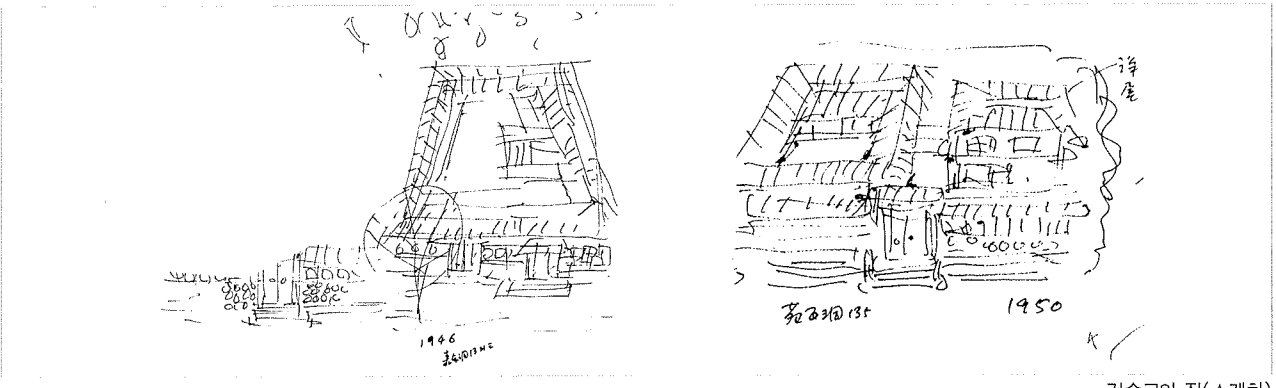
4. 김수근 어머니와의 인터뷰.
5. 건축가 김수근씨의 어머니, 김우수달 여사. 여성동아. 1977년 8월호.
6. 김수근 어머니와의 인터뷰.
7. 이 학교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민학교로, 1891년 고종에 의해 왕실자녀들에게 신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렇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적인 측면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 예술가가 만들어 낸 작품이나 글들은 매우 다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이 제시한 상징적인 이미지나 언표들은 의미의 압축과 이동이 교차하는 복합성에 의해 다의적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김수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그가 자신의 공간개념과 조형의식이 어떻게 건축적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쓴 글들과 작품을 엮어서 그 기원을 반대로 추론해 나갈 수밖에 없다.

김수근이 건축가로 성장하는데 세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먼저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대부분의 유년기를 보낸 서울 북촌에서의 삶이다. 두번째는 근대적인 건축교육을 받는 9년간에 걸친 일본 체류기간이다. 세번째는 1960년 귀국한 이후 한국적 조형일반의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 최순우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다. 이렇게 구분된 세 기간은 그가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성장하는데 각기 다른 양상으로 의미를 갖게 되지만, 조형의식과 공간개념의 형성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유년기의 서울 북촌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전생애에 걸쳐 지속될 지각적인 스키마(schema)의 체계, 즉 구조화된 세계를 획득한다고 보고 있기⁸⁾ 때문이다. 뼈아제에 의하면, 최초의 스키마는 사물의 고유성에 대한 지적인 추상이 아니라 주로 수많은 현상의 유사성(類似性)으로부터 추상화되어진 세계가 형성되어, 직접적인 지각이 갖는 유동적인 이미지 밑에서 영구적인 대상을 구성한다고 한다. 이 주장에 공감한다면, 건축가들이 가지는 원형적인 심상은 주로 어린시절의 지각 체험을 통해서 특정한 문화를 습득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동의할 수 있다.⁹⁾ 따라서 우리는 김수근의 조형의식과 공간개념의 형성과 그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서울의 북촌¹⁰⁾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추측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수근이 그린 여러가지 스케치를 검토해 보면 이런 추측은 자의적인 것이 아님이 판명된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는 펜으로 복잡하게 그려진 스케치들이다. 촘촘하면서 무질서하게 그려진 선들, 이것은 바로 그의 머리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심상(mental image)이 표출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이런 심상은 김수근의 유년시절을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이미지들의 유사성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본질적인 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유년시절의 환경, 즉 북촌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1930년대 서울은 비록 타의에 의해서이지만 근대적인 면모를 조금씩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산미증산계획에 따른 농촌의 궁핍화로 인해, 농촌인구가 계속해서 서울로 몰려들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따라서 이에 필요한 도시시설들과 도시계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심의 경우 풍수지리에 입각한 기존의 도시질서가 일체의 강권적인 도시구획정리사업으로 와해되고, 서구적인 도시개념에 의해서 새로운 면모를 갖게 된다. 1907년 일본 황태자의 서울방문을 위해서 동대문과 남대문의 주위 성곽이 철거되면서 도성으로서의 서울의 면모는 사라진다. 1910년부터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서울의 명칭을 한성에서 경성으로 바꾸고, 1911년에는 도시계획 가로망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주요 간선로를 확장하고 신설하는 공사를 벌인다. 광희문과 남대문로를 연결하는 직선의 을지로와, 경복궁에서 남대문을 연결하는 태평로, 그리고 종묘의 북쪽지역을 절단하면서 통과하는 을곡로 등은 바로 이 때 신설되었다.¹¹⁾ 이렇게 넓혀지고 만들어진 도로에는 자동차와 전차가 다니게 되고, 바로 여기서 사람들은 일찍이 이상(理想)이 감지하였던 도시적 감수성과 근대문명이 주는 여러가지 의미들을 체험하게 된다. 서울의 도시계획은 1934년에는 조선총독부령으로 조선시가지령이 공포되면서 식민지하에서의 그 큰 골



김수근의 집(스케치)

8. J. Piaget, The Child's Construction of Reality, C.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제인용.
 9. 실제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경우, 건축사자들은 그의 조형의식과 어릴 적 그의 어머니가 구입해 준 프레벨 은물과 많은 관련을 지우는데, 라이트 자신도 이 놀이의 조형원리가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생애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시인하였다. 루이스 칸의 경우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폴 클레를 통해 접한 보자르의 전통이 그의 조형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르 꼬르뷔제의 경우, 청년시절 여행을 통해 발견한 지중해의 문화와 고전적인 전통을 그의 조형의식의 원류로 본다.
 10.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이미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주거지 분화가 된 곳이다. 도성내의 주민들은 대체로 계층 및 직업에 따라 주거지역을 달리하고 살았는데,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여, 그 북쪽은 풍수상의 길지로서 궁궐, 관아 교육기관이 인접한 이유로 주로 양반계층이 살았으며, 그래서 중류계층과 하급관리들이 주로 사는 남촌과는 대비되는 이름으로 이곳을 북촌이라고 하였다. 임택순, 서울의 수도기원과 발생과정, 68-69쪽, 송인호, 도시형 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의 내용을 재수록.
 11. 吉田光男, 漢城と都市計劃-近世ソウル論序説, 朝鮮都市論へのアプローチ, 朝鮮史研究會, 1982년, 112쪽.

격이 잡히게 된다. 그렇지만 이 당시 서울의 도시체계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몇가지 왜곡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서울의 도시구조에는 식민시대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종로를 중심으로 하여 북쪽(북촌)은 주로 조선인들이 거주하였고, 남쪽(남촌)은 주로 일본인들이 새로이 정착하게 된다. 당시에 세워진 대부분의 공공건물과 대형빌딩들은 주로 일본인 주거지역에 밀집되었고, 근대적 도시계획도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김수근이 주로 산 북촌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기와집들로 별다른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당시 서울의 도시구조는 유기적 일체성을 가졌기 보다는 기형적 이중구조를 가지게 된다. 또한 서구의 경우 도시화는 공업화와 동시에 일어났는데, 일제는 한국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산업이외에는 공업의 발전을 억압했기 때문에, 서울은 자생적인 산업기반을 갖지 못하고 주로 식민지배를 위한 행정과 서비스시설만이 들어선 소비도시가 된다. 그 결과 도시 내부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가 없었고, 서울시민들은 대부분 일제의 행정관청에 기생하는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제의 도시계획이 주로 강권적인 토지구획정리에 머물면서 근대도시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1936년에 '대경성계획'이 발표되면서 많은 교외지역이 도시에 포함되지만 도시의 골격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¹²⁾ 도시형 한옥이 계속 반복되면서 거대한 기와지붕의 군집을 이루는 서울의 북촌지역은 김수근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산 곳이고, 9년간의 일본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의 홈베이스 역할을 한 곳이다.¹³⁾ 그가 북촌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어머니가 자식의 공부를 위해 청진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1938년 종로구 수송동에 정착했을 때부터라고 생각한다. 이때부터 3-4년 간격으로 1950년까지 삼청동, 가회동, 원서동을 옮겨 다닌다.

이 당시 전통적인 한옥주거지로서의 북촌은 “근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대형 필지 또는 주거지 안쪽의 미개발지 등이 새로운 도시형한옥으로 개발되게 된다.”¹⁴⁾ 김수근이 청진에서 서울로 올라온 1938년경에는 1930년대 중반이후, 부족한 도시주거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대형 필지의 와해와 소필지로의 분화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김수근이 자신이 살던 집들을 그린 스케치를 살펴보면, 이들은 전통적인 상류주택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소필지로 분할되어 지어진 개량식 한옥도 아니었다. 특히 그가 1950년에 살았던 원서동 135-2의 주택은 지금까지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로 남아 있는데, 220평에 달하는 대지에 매우 고급스런 춘양목으로 지어진 전통한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가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산 '수송동 46의 13번지' 주택은 전통적인 한옥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스케치 상으로는 건물의 규모는 나타나지 않지만, 출입구 부분의 파사드는 전형적인 한옥의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후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산 '삼청동 35번지' 주택은 1920년 이후 일본을 통해 들어온 화양(和洋)절충주택의 외관을 지니고 있다. 미국 방갈로풍의 건물이 변형된 이런 양식은, 1921년 무렵 일본각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후, 서울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일본인들의 관사와 사택을 중심으로 세워진다. 이것의 영향으로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붉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소위 '문화주택'의 건설이 성황을 이루게 되는데,¹⁵⁾ 김수근이 산 삼청동 주택은 이 당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로 김수근의 조형의식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곳은 바로 '가회동 208번지 주택'(1945-1946년)과 '가회동 13의 3번지 주택'(1946-1950년)이다. 그가 보브라는 미국인 병사를 통해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건축에 눈을 뜨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에 접근해 나가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두번째 집은 월북한 무용가 최승희가 살던 집으로¹⁶⁾ '링'자형 주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집은 헐려서 지금 이곳에는 양옥 건물이 들어서 있다. 원서동 135-2의 주택은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두 부분의 건물이 보이는데, 하나는 '링'자형의 한옥이고, 또다른 하나는 김수근의 부친이 지은 양식건물이다(지금은 헐려서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링'자형의 한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얇은막한 또하나의 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중정의



원서동 135-2번지의 집

12. 橋谷 弘, NIES都市ソウルの形成, 朝鮮都市論へのアプローチ, 朝鮮史研究會 編輯, 122-123쪽.

13. 김수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나의 집은 서울 종로구이다. 그냥 막연히 종로구라고 넓게 잡은 것은 태어나서 50 평생이 되도록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회동, 개동, 원서동 등지를 전전해 왔기 때문이다. 나의 집, 나의 홈 베이스는 지금도 이 속에 있다." 김수근, 활력과 리듬을 찾아, 샘터, 1981년 8월.

14. 송인호, 같은 책.

15. 김정아, 일제시대 '근대주거'의 유형연구 -경성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학과 석사논문, 1992년.

16. 김수근 선생 어머니와의 인터뷰. 이 집은 후에 소실되어 작은 필지로 분할되어 나누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17. 김봉렬, '공간의 집합 : 병산서원', 건축과 환경, 1994년 8월, 18. 1979년 3월 24일 에 쓴 김수근의 일기.

공간을 한정하면서 공간적 중층성을 연출하고 있다. 김수근의 건축에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짓는 입구의 의미가 매우 강조되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건축적 어휘는 바로 이런 유년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듯하다. 당시의 한옥에서의 체험이 나중에 그의 건축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예는 원서동의 한옥마당과 청주박물관의 중정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나타난다. 그 스케일과 조작방법이 너무나 유사해 보인다.

그렇다면 서울의 북촌이 건축가 김수근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건축과 대지의 관계이고, 두번째는 조형의식이고, 세번째는 공간개념이다. 건축과 대지와의 관계, 건축과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는 김수근 건축의 핵심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김수근이 유년기를 보낸 북촌은 조선왕조의 태조 이성계가 서울에 도읍을 정한 이래로 풍수지리상 가장 길지로 손꼽히는 곳일 뿐 아니라 도성내의 위치적, 기능적 측면에서도 최고의 양택지로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다. 이곳은 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며 바람이 순하여, 왕궁과 사직을 모시는 제단, 종묘 등이 위치해 있고, 이들 사이에 고급관료들의 대저택이 들어서 있다. 현대화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겪은 지금도, 시내쪽에서 이곳을 바라 보노라면, 겹겹히 쌓인 집들의 실루엣이 배경으로 있는 산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지붕에 한식기와를 얹은 나지막하고 조그만한 건물들이 북악산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에 돈화문이 우뚝 솟아 있어서 시선을 붙들어 매는 것이다. 김수근은 이곳에서의 유년생활을 통해, 한국건축이 가지는 이른바 '점지의 묘'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었던 것



원서동 135-2번지의 집: 중간문을 통해 본 중정부분

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즉 대지 내에 건물이 자연스럽게 삽입되면서, 이것이 보는 이들에게 시원한 눈맛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후에 최순우와의 교류를 통해 더욱 명확해지지만, 그를 만나기 이전에 지은 작품에서도 대지에 대한 개념들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에 대한 생각의 원류를 바로 북촌에서의 삶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조형의식에 관한 것이다. 과연 김수근은 당시 북촌을 구성하고 있었던 전통 한옥에서 어떤 조형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각각의 개인에 따라 동일한 환경을 인지하는 심상은 다르기 때문에, 한옥을 어떻게 보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김중업이 전통건축 가운데 지붕이 지니는 강한 조형성과 양감에 강하게 집착한 것과는 달리 김수근은 전통건축이 가지는 강한 선적인 구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 특히 한옥이 가지는 조형적 특징 가운데 지붕의 이미지는 그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이후 그가 한 한옥 스케치를 보면, 지붕의 기와골이라든가, 기와가 겹치면서 생기는 가는 선들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중업과는 달리 한옥 지붕이 가지는 양감(量感)을 비교적 평면적으로 처리하면서, 이들의 대체적인 윤곽을 굵은 선들과 가는 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건축조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의 작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양감을 선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이다. 부여박물관과 청주박물관에서 사용된 지붕 모티브는 바로 이런 선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붕 형태 이외에도 이런 이미지는 조형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지붕 자유센터의 기둥 디테일을 보면 이런 경향은 잘 나타난다. 기둥이 가지는 볼륨을 계속해서 선화(線化)하고 있는 것이다. 후에 그에 작품에 나타나는 모든 선적인 요소들도 바로 이런 이미지와 동일하게 오버랩될 수 있을 것이다.

한옥을 선적인 요소로 파악하려는 경향과 함께, 건축조형을 균집적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이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 병풍처럼 서있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대지에 수천채의 한옥이 겹을 이루면서 서있는 모습은 바로 한국의 균집미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미적 체계는 한국 전통건축의 조형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김봉렬은, “한국건축은 자연지형까지도 일체가 된 거대한 영역 속에서 서로가 집합되어 있어서”¹⁷⁾ 이것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건물의 집합방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국건축의 조형미는 바로 건물 개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 건물의 집합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근이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면서 감탄을 자아낸 것도 바로 경사진 대지위에 촘촘하게 균집되어 있는 주거군들이었다. 자연발생적으로 지어졌지만, 이들이 균집을 이룰 때 장엄한 아름다

17. 김봉렬, '공간의 집합: 병산서원', 건축과 환경, 1994년 8월.

다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그가 후에 일기장에 기술한 바 있는 다음의 독백과 상응되는 것이다. “중이는 투명해야 좋다. 축적(蓄積)이 보이니까. 축적을 덮쳐 축적을 이룩할 수 있으니까. 이전축적(前蓄積)기록을 겹쳐 볼 수 있으니까. 겹쳐져야 창조가 있을 수 있으니까.”¹⁸⁾

마지막으로 공간의식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북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길의 특징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북촌의 가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매개적인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950년대 말 이후 영국의 건축가인 스미슨 부부에 의해 주거단지에 재도입된 이후 제 3세대 건축가들의 대표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가로’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렇지만 서구의 가로 개념에 비하면, 북촌에서의 길은 그 스케일에 있어서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 기능은 더욱 포괄적이며, 그 구성은 더 미로적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에 적용되면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를 형성하는 가로체계를 격자형과 가지형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¹⁹⁾ 기하학적인 격자형으로 구성된 서구의 가로체계에 비해서 북촌의 <가로 형태는 골짜기나 물의 흐름 등 지형에 따라 일차적으로 그 기본적인 형태가 결정된²⁰⁾ 가지형의 가로 체계와 막다른 골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량통행이 완전히 차단된 이 길들은 순전히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고, 또 가로 양쪽의 주거벽으로 포위된 좁고 인간척도의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또한 넓은 필지를 나누면서 나타나게 된 T자형의 좁은 미로와 지형차이로 인해 생겨난 계단들은 서구의 직선적인 가로나 넓게 둘러싸인 광장과는 다른, 분절되면서도 폐쇄된 매개공간을 형성한다. 그래서 북촌의 한옥주거에서 나타난 가로체계의 구조는 통과기능 보다는, 오히려 가로 양쪽의 각 가구가 공유하는 반사적(半私的)인 공간기능에 더 알맞는 것이고, 다수의 익명적인 집회보다는 소수의 친근한 이웃과의 모임에 더 적합한 것이다. 이런 외부 공간은 이어 내부공간인 마당으로, 반외부공간인 처마공간을 통해 연결되는, 일련의 공간적인 프로세스를 형성시키는데, 이 개념은 후에 김수근 건축의 주요 모티브로 등장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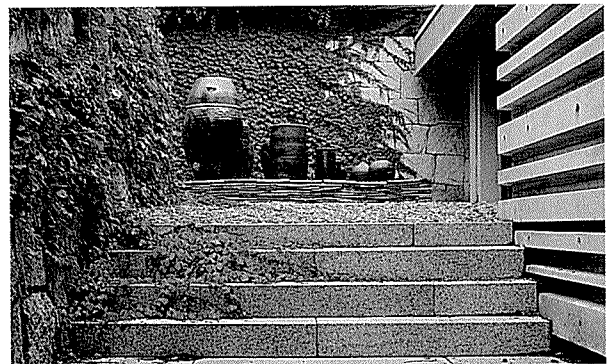
점은 바로 이 공간들이 집과 담장 그리고 대문이나 계단 등으로 구성된 ‘사이(間)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닫혀진 공간체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공간체계를 의미한다. 북촌의 외부공간체계는, 지금은 대형필지가 작은 필지로 분할되면서 그 공간적인 성격이 많이 변했지만, 김수근이 거주할 당시 조선시대 상류주택이 가지는 공간방식으로 구축되었다. 그것은 서구의 건축처럼 폐쇄되고 구심적인 외부공간이 아니고 한정된 내부공간을 외부까지 확장시키거나 외부공간이 내부공간까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의 신축성 또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격이 분명한 공간이 아니고 경계가 불분명한 ‘사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김수근은 이것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독특한 공간론으로 발전시킨다. 즉 ‘둘러싸여 있으나 결코 막히지 않는 공간(enclosed but endless space)’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같은 공간체계는 다음과 같은 체험을 김수근에게 가져다 준다. <나는 어린 시절에 서울의 가회동과 낙원동과 제동과 인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꼬불꼬불한 많은 길을 누비고 걸어 다녔고, 자전거도 타고, 제기도 차며 그 길 속에서 자랐다. 그때의 길들은 나에게서 마당이요, 놀이터요, 시체(時體)랄로 거실이요, 휴식의 처소요, 나의 몸의 크기와 살갓에 알맞는 주위공간이었다.> 이후 김수근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도시의 길은 집과 집 사이, 건물 사이의 공간들로 구성되어 여러가지 삶의 모습이 연출되는 무대였다. 또 도시의 길은 여러 기능을 가진 곳이요, 끊임없이 변하고 형성되고 되풀이되는 도시의 핵으로서 도시의 고유한 삶을 키우는 근원적인 존재²¹⁾였다.

1944년 김수근은 경기중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후 해방을 맞는데, 이해 가을에 그의 삶을 가르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다름아닌 건축을 전공하는 한 미국인 병사와의 만남이었다. 영어를 배워 보겠다는 단순한 욕심에서 ‘헬로’를 외치는 후진국 소년과 미국 병사와의 선문답과 같은 대화는 당시 한국 현대 건축의 위상과 건축가 직분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당시의 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가는 무엇하는 사람이나?



원서동 135-2번지의 집: 장독대



청주박물관 중정부분

18. 1979년 3월 24일에 쓴 김수근의 일기
19. 이 분류는 송인호의 논문에 의한 것이다.
20. 송인호 앞의 책, 62쪽.
21. 김수근, 앞의 책, 102쪽.

-예술가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다. 건축가는 건축가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미국의 대통령보다 중요한 사람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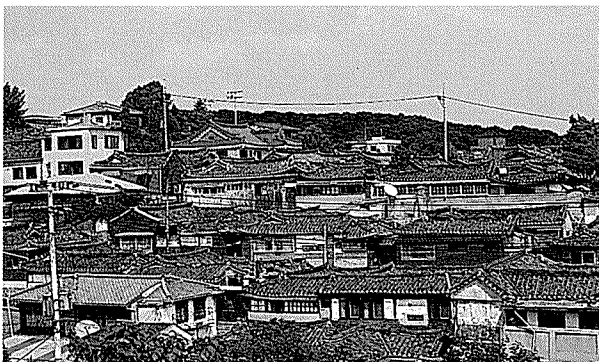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집이 없으면 살지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지.)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과연 건축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는데, 보브리라는 미군이 대답한 것은 <소설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려야하고, 여행을 많이 하여 안목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일이면 늦다. 특히 건축가는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므로 오늘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²²⁾ 몇마디로 압축되어 있는 이 말에서 우리는 건축가 김수근이 지향하게 될 본질적인 삶의 방향과 그가 견지할 삶의 태도를 감지할 수 있다. 한 미국인 건축학도와 우연한 만남이 후에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성장하게 될 한 한국소년의 눈을 뜨게하고,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도록 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후 계속된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건축적인 견식을 넓히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한다. 아버지를 졸라서 사진기를 장만하고, 주말이면 고사찰을 답사하였다. 문예반에 들어서서 그림도 그리고 합창활동도 한다. 건축가가 되기 위한 예비적인 활동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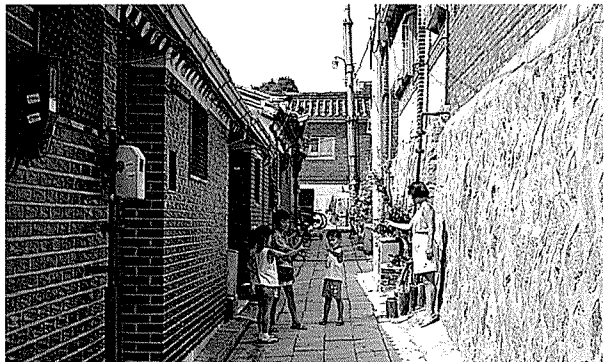
미국인 건축학도와와의 만남을 통해, 건축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힌 그는 1950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한다. 일제시대 총독부의 건축사업을 보조할 건축기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1918년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출발한 이 학교는 박길룡과 박동진과 같은 대표적인 초창기 근대건축가들을 길러낸다. 이후 1947년 이후 국립서울대학교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는데, 1950년 당시 서울대 건축과 교수진은 김종업(요코하마 고공), 황의근(코토대학), 김종식(와세다 대학), 김형걸(동경공대)과 같이 일본에서 건축을 공부한 교수와 이균상(경성고공)과 같이 한국에서 공부한 교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수근이 후에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게 될 김종업을 처음 알게된 것은 그의 매부가 될 화가 박고석(朴古石)이 그의 친구인 김종업을 소개해 주었을 때였

다. 그는 1939년 일본의 요코하마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서, 동경에서 마쓰다(松田) 히라다(平田) 사무실²³⁾을 다니다 귀국하여 조선주택영단의 기수로 일하다, 1947년부터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중이었다. 그렇지만 입학후 3개월 만에 한국전이 발발함에 따라 김수근은 1년 이상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다. 전쟁이 날 당시 그의 부친은 충청도 예산에 있는 금광에 머무르고 있었다. 해방후 북한에 공산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그의 집안은 당시 사양길에 놓여 있었던 건축 사업을 정리하고 남하하여 서울에 정착한 다음 이 금광을 구입하였다. 해방후의 어수선한 정국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었다. 전쟁발발 후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자, 피난을 가지 못했던 김수근은 의용군으로 강제로 동원되었다. 다행히도 그가 끌려간 곳은 휘문중학교였다. 담하나만 넘으면 바로 자신의 집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도망치는데 성공하여 아버지가 있는 예산까지 걸어갔다고 한다. 그후 14후퇴 때에 대구를 거쳐 부산 영도에 정착하는데, 여기에는 서울대학교가 천막을 치고 임시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김수근은 김종업을 다시 만난다. 당시 두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지만, 김수근이 밀항할 때 김종업이 군표 100달러를 주어 여비를 도와 주었다고 한다. 후에 김종업이 운명의 베니스 회의에 가기 위해 일본을 들렀을 때, 이 두사람은 김수근의 하숙방에서 15일을 같이 보내며, 미술관 구경도하고 술도같이 마셨다고 한다.

일본 밀항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1951년 후반으로 추정되는데, 그의 밀항 동기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었다. 내전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건축가로서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는 보다 안정된 곳을 찾아나선 것이다. 어머니에게 알리면 분명히 반대할 것으로 알고, 당시 부산에서 살고 있었던 이복 누이에게만 알리고, 아버지의 악어가방을 판 돈으로 여비를 마련하여 밀항을 꾀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1960년 국회의원사당 현상설계에서 당선되어 귀국할 때까지 9년간의 기간은 그의 건축관 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시기였다. <다음호에 계속>



가회동 전경: 한옥의 군집미



가회동 골목

<사진: 심훈보>

22 김수근, '결정적 헬로', 앞의책, 16쪽.

23 김수근도 후에 이 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